



유두석 장성군수(왼쪽 두 번째)가 푸드플랜 준비를 위해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다.

장성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시스템 발판

‘지역단위 푸드플랜사업’ 공모 농촌형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장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 공모에 농촌형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이란 먹거리의 생산·소비·유통·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역내순환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중소농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

고, 지역민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지역단위 먹거리 종합전략’이다.

2019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 공모에는 전국 31개의 지자체가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장성군은 농촌형 푸드플랜의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지역 먹거리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장성=봉채영 기자

전남교육청, 교원행정업무경감 만족도 높아

전국 도단위 교육청 중 최상위 수준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원행정업무 경감 정책이 일선 학교 교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2018년 교원행정업무경감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라남도교육청은 평균점수에서 5점 만점에 3.42점을 획득해 2017년(3.40점)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는 전국 도 단위 교육청의 평균점수(3.08점)를 크게 상회한 수치다. 전반적인 하락추세(3.14점→3.08점) 속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가법치 않다.

교육부는 조사결과를 시·도 단위 평균점수를 산출해 해당 교육청에만 통보하고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전남교육청의 평균점수는 전국 도 단위 교육청 중에서 최상위 수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봉채영 기자

“섬과 섬 잇는 멋진다리 2028년 완공”

전남지사, 초등생 편지에 답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사진)가 여수 섬마을을 초등학생들이 언제든 육지를 오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보내온 편지에 “하루빨리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답장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께 여수 개도의 화정초등학교 학생들이 여섯 통의 손 편지를 김영록 도지사에게 보내왔다. 편지에는 “섬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없애달라”며 “육지와 연결된 다리를 놓아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었다.

이에 김지사는 답장을 통해 “저도 섬에서 나고 자라, 섬 주민이 겪는 불편과 간절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튼튼하고 멋진 다리가 하루빨리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전남=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4월 9일 (화)
음력 : 3월 5일

수도권 날씨
7 ~ 15°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6:07 | 해질 / 19:0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완도군, 사업비 200억 확보 ‘해양치유산업’ 메카 만든다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
대통령 직속 공모사업 선정
신지면에 스마트단지 등 조성

미래 100년 먹거리 해결을 위해 완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해양치유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완도군은 7일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2019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완도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 지방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비 200억 원은 완도군에서 유치한 국가 공모사업 중 단위 사업으로는 역대 최고액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더 큰 의미가 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은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이며 총 11개 사업을 선정하여 일자리 창출, 공간 혁신 및 삶의 질을 제고하는 지역 주

도 사업이다.

완도군은 전남도를 대표하는 2개 사업을 선정하는 평가에서 1순위로 선정되어 지난 2월 15일 국가균형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11개 사업을 선정하는 최종 평가에서 전남도내 유일하게 선정됐다.

완도군이 추진하는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은 완도의 청정 환경과 해양자원을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 발전시키는 지역 혁신 플랫폼 조성 사업이다.

주요 사업은 지역별로 5개 단위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향후 3년간 1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해양치유 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사업은 이미 확보한 신지면의 59,743㎡의 부지에 첨단 ICT기반 스마트 단지 조성, 공동협력 연구소 설립, 유럽 블루밸리파크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콘텐츠 개발에도 약 30억 원을 지원한다. 개인 맞춤형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해양기후치유센터 건립, 노르딕워킹 코스 조성 사업을 위해서다.

또 12개의 다양한 해양치유 파빌리온 조성 및 ICT기술을 활용한 건강 체크업 시스템을 개발하는 해양치유 스마트 플랫폼 구축사업에는 약 30억 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반석, 갯벌, 수산물의 상관관계 분석 후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완도의 역사, 환경, 자원을 스토리화하는 해양문화치유 콘텐츠 개발 사업에 약 10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총 324명, 스타트업 30개, 연구소 유치 10개, 연간 관광객 102만 명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산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여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자체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이제진 기자 wando1106@metroseoul.co.kr

“전주를 특례시로”... 균형발전 서명운동

전주시-한옥마을 비빔공동체
여행객 700명 서명운동 동참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국내외 여행객들도 전주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주시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전주한옥마을 비빔공동체와 함께 전주한옥마을 여행객을 대상으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친 결과 약 700명이 서명에 동참해 전주 특례시 지정에 힘을 불어넣었다고 8일 밝혔다.

시와 전주한옥마을 비빔공동체는 3일간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광장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한옥마을 여행객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전주시 현장시청인 한옥마을지원과 직원들과 비빔공동체 회원들은 ‘내가 만들어가는 더 큰 전주! 전주 특례시로



한결을 더!’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홍보부스에서는 전주 특례시 지정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등 서명 동참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여행객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서명방법도 안내하고, 지인들도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안내문과 홍보부스를 본 주변 상인들도 직접 홍보부스를 찾아와 서명을 해주기도 했으며,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시민들도 선뜻 서명에 동참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은 특례시에 대해 다소 생소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광역시 없는 전주의 현실에 대해 공감하고 서명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번 서명운동을 위해 한옥마을비빔공동체는 지난 4일 열린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출정식에 참석해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유하고 의지를 다졌으며, 지역 상가와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도 했다.

/전주=봉채영 기자 bcy2020@

‘천사대교’ 개통... 2개 시외버스 신규운행

전남, 1시간 노선 10분으로 단축

전라남도는 천사대교 개통에 발맞춰 광주~신안 암태 간, 서울~신안 암태 간 시외버스가 각각 11일과 12일 신규운행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자은·암태·팔금·안좌 등 섬 지역에서 육지까지 배로 1시간 소요됐

다. 하지만 천사대교 개통으로 10분 내

외로 단축되면서 섬 주민의 대중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전남 섬의 절반이 모여있는 신안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 증진은 물론,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출발한다. 운행 소요시간은 4시간 40분이다.

광주~암태 노선은 광주~송공항까지 운행하고 있던 노선을 연장한다. 하루 7회 운행한다. 광주에서 오전 5시 50분, 8시 5분, 8시 50분, 11시 5분, 오후 12시 40분, 1시 30분, 4시 25분 출발한다. 암태에서는 오전 8시 40분, 10시 25분, 오후 12시 30분, 1시 40분, 2시 40분, 3시 25분, 7시 출발한다. 운행소요시간은 1시간 40분이다.

/전남=봉채영 기자